

# 이재명, 민주당 초반 경선부터 압승 예고

### 강원, TK서도 승리하며 누적득표율 91.7% 민형배,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꼴찌' 체면 구겨 내달 3-4일로 예정 호남 경선에서 승부 걸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1일 대구·경북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각 94.73%와 98.9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했다. 김두관 후보는 4.51%와 5.20%, 김지수 후보는 0.76%와 0.83%로 각각 집계됐다. 전남 제주·인천 경선에서 누적 득표

반면, 누적 득표 7.19%에 그친 김두관 후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신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과 다음 달 3-4일 열리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정봉주 후보와 김병주 후보가 흔들림 없이 1-2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치러진 제주, 인천, 강원, 경북, 대구 순회 경선 누적 결과는 정봉주(21.67%), 김병주(16.17%), 전현희(13.7%), 김민석(12.53%), 이언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

(6.1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호남 단일후보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민형배 후보는 현재까지 누적 4천82표(득표율 6.13%)로 전체 최고위원 8인 중 8위를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민 후보는 이날 열린 TK 경선에서 대구 643표(6.53%)로 8위, 경북 경선에서 708표(6.10%)로 8위, 앞서 강원에서 열린 경선에서도 631표(5.34%)로 8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제주 경선에서도 823(7.01%)표를 얻어 8인의 최고위원 후

보 중 8위, 같은 날 열린 인천 경선에서 2천27표(6.33%)로 7위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선거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호남권 단일 후보가 된 민 후보가 다음 달 3-4일 예정된 전북, 광주, 전남 경선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 후보는 이날 SNS에 "민형배는 호남에서 찍어주니 안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민형배가 된다. 안 찍어주시면 민형

배는 안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다음 날인 8월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는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김진수 기자

## 신정훈 '대북 전단 사전 신고법' 발의

### 윤 정부 출범 이후 급증... '남북관계' 약화 북한 적대 행위 유발 사전 차단 효과 기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등으로 인해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은 21일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다시 늘고 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북 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판



결을 존중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산명령까지 가능한 것이 골자이다. 신정훈 의원은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시해 차선책으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입법 미비를 방지하고자 했다"며 "본 법률안을 통해 남북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당기를 받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 가격 폭등 시 국가지원 통해 농가 안정성 확보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1일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첩경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 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속에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업에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필수농자재에 대한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 조국, 99.9% 찬성률로 조국혁신당 대표 재선출

###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출신 발탁 가능성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조국 대표를 99.9%의 찬성률로 재선출했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에 추대됐으며,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사퇴했다. 대표 임기는 2년이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자 편애왕, 지역 파괴왕, 민

생·경제 파괴왕, 헌법 파괴왕"으로 규정하며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 의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59.6%),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각각 당선됐다.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선민 의원은 대표 권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황은하 원

내대표,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 외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회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언제 현실화할지 모르겠지만 수석 최고위원이(대표직을 수행) 할 것"이라며 "그런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조국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조국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